

슬럼

인권, 이곳에 있다

인권증진 = 빈곤감소

AMNESTY
INTERNATIONAL



다 나는 존엄하다 나는 존엄하다 나는 존엄하다 나는 존엄하다 ((나는 존엄하다)) 나는 존엄하다 나는 존



전 세계적으로 20만 개가 넘는 지역을 빈민가로 정의할 수 있다. 비동빌(bidonvilles), 게토(ghettos), 후드(the hood), 인도의 버스티(bustess) 또는 차울(chawls), 브라질의 파벨라(favelas), 콜롬비아의 바리오스 포플라레스(barrios populares), 그리고 비공식 정착촌(informal settlements) 또는 단순히 슬럼(slums)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러한 지역들에는 전 대륙에 걸쳐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런 지역은 주거와 위생 및 배수시설이 열악하고 수도 및 전기 시설이 미비하거나 인구와 폭력 발생률이 높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상당 수는 "불법" 또는 "미등록" 지역으로 분류된다. 주민들은 임차권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항상 강제퇴거의 위협을 안고 산다. 이런 동네 역시 다른 모든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생활하고 일하며 먹고 자고 아이들을 키우는 곳이다.

전 세계의 슬럼 인구는 우려할 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농촌 지역에서의 투자철수, 분쟁, 자연재해, 기후변화, 토지 및 재산권 박탈, 집단 강제퇴거, 기업의 토지 강탈 및 상업 프로젝트로 인한 주거 박탈 등을 들 수 있다. 일부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에는 슬럼거주 인구가 20억 명에 달할 것이라 한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에게는 슬럼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빈곤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위기라면, 슬럼은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복합적인 인권침해의 운상

슬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원과 재산에 있어서도 박탈에 직면한다. 적절한 주거권도 거부될 뿐 아니라 안전한 물, 위생, 보건과 교육 같은 기본 서비스로부터도 배제된다. 그들은 또한 경찰과 범죄조직의 지속적인 폭력 위협과 사전 경고도 없는 강제퇴거의 위협 때문에 높은 수준의 불안에 직면해 있

다. 빈곤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전체가 범죄자 취급을 받거나 차별 받기 때문에 사법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절차와 결정에 있어, 슬럼 주민들의 의견은 대개 무시된다. 강제퇴거계획 시 이들의 주택을 보수하거나 대체 주거지를 조정하는 결정을 할 때, 주민들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며, 참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결코 개발도상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유럽 도시 주변과 미국의 빈민가, 캐나다와 호주의 선주민 거주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박탈, 불안, 배제, 무시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탈리아의 로마족(집시)들은 국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지에 살기 때문에 국가가 제공하는 보건 및 기타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로마족의 주거지는 파괴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 때문에 강제퇴거 당했다. 슬로바키아의 로마족 정착촌에는 학교나 의료시설, 병원, 도서관, 공공 세탁시설 같은 공공 시설이 없고 대중교통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역은 나머지 사람들로부터 배제되고, 더 심각한 박탈로 직결된다.

슬럼 지역 여성들은 특히 취약하다. 브라질에서 국제엠네스티와 인터뷰한 여성들은 가정 폭력이나 다른 형태의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려 할 때 겪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위생시설이 없는 지역의 여성들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야 하거나 또는 남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성폭력과 성추행의 위험이 높다.

슬럼에서 비좁게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다양한 인권침해로 고통 받는다. 이러한 인권침해들은 얽히고 설켜 있다. 뿐만 아니라 모두 용납할 수 없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나는 존엄하다(Demand Dignity)' 캠페인은 삶을 망가트리고 제한하며, 희망과 꿈을 짓밟

사례연구: 앙골라 강제퇴거

마리아 세바스티오 안토니오(Maria Sebastião António)는 3명의 자녀를 둔 31살의 엄마로, 앙골라 르완다 인근의 방가 웨(Banga Wé) 지역에 거주한다. 노바 비다(Nova Vida, 새로운 삶) 주거 프로젝트를 위해 그녀의 가족을 비롯해 500여 명의 주민을 강제퇴거 시키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다. 그녀의 사연은 다음과 같다.

나는 방가 웨에서 평생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태어났지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철거작업이 있었습니다. 철거에 대해 사전 경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매일 일을 하러 가야 했고 퇴근했을 때 집이 그 자리에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에 살았지만 내 집은 2005년 11월 철거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막내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철거반원들은 불록을 파괴했지만 지붕에 사용된 아연판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용해 아연판 집을 지었죠. 그들은 6일 후에 그들이 다시 와서 그 집마저 철거해버렸습니다. 나는 철거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잡혀갔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한 경관은 나에게, "경찰은 거리에서 사람을 패지 않아. 경찰서에서 패지."라며 위협했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경관이 날 때리는 것을 말려주었습니다.

2008년 선거 전, 노바 비다 주거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가 장고III(Zango III)에 있는 새집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수도가 없습니다. 내 아이들은 공부도 할 수 없습니다. 노바 비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등록하는 것조차 허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는 너무 멀리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여전히 없다는 점입니다.

표지: 뭄바이(Mumbai) 최대 슬럼이자, 빈곤과 거대기업이 공존하는 다라비(Dharavi)를 가로지르는 시의 상수도관을 따라 걸으며 물을 길러 가는 한 소년, 인도, 2008.

오른쪽: 브라질 최대 슬럼인 로치나(Rocinha)를 순찰 중인 경찰 옆으로 아이를 안고 걸어가는 여인, 리우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 2005.



© Private

'총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악당들은 총을 가진 줄 아는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총이 없어도 여전히 위험하다. 경찰을 포함해 누구라도 당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아도 위험하다. 만약 당신과 가까운 누군가가 폭력조직에 어떤 행동을 했고 그들이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당신을 찾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자메이카 킹스턴(Kingston)의 게리슨(Garrison) 지역 출신의 여성, 2007.10.

고 또한 사람들을 빈곤의 굴레에 가두고 있는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국제적인 활동이다.

거부된 안전 - 강제퇴거

슬럼으로 지정된 구역들은 대부분 국제인권법에 정해진 적정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부들은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즉각적인 조치조차 실시하지 않는다. 대신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국제 기준에 명시된 보장조항을 무시하고 적절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주민들을 살던 곳에서 이주시킨다.

강제퇴거는 정부가 금지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는 인권침해이다. 슬럼 주민들은 이러한 침해를 일상적으로 겪고 그 거대한 그림자 아래서 매일같이 살아간다. 정부에 의한 대규모 강제퇴거가 늘고 있다.

앙골라와 캄보디아 같은 국가의 도시 개발이나 베이징 올림픽 같은 대규모

국제대회 준비기간 중 도시 미화 사업의 공간확보를 위해 많은 슬럼들이 철거되었다. 이러한 경우, 유엔 해비타트(UN-Habitat)가 지적하듯, "퇴거 당하는 것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다. 부유층은 사실상 강제퇴거도, 대규모 퇴거도 절대 겪지 않는다."

강제퇴거 시 종종 경찰이나 다른 정부기관이 과도하게 무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강제퇴거 당시에 기록된 다른 인권침해로는 강간,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고문과 불법적인 살인 등이 있다.

강제퇴거의 여파는 엄청나며, 특히 반복적으로 이러한 침해를 겪는 이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 강제퇴거로 인하여 사람들은 개인재산과 사회적 관계, 직장 및 학교에 갈 권리 등을 상실한다. 주민들은 노숙자가 되거나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살아가게 된다. 여성들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만연한 성차별로 인해 훨씬 더 고통 받는다.

공공서비스와 자원의 이용권 박탈

슬럼이 불법적이라는 인식 때문에, 슬럼 주민들은 국제인권법 상에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국가의 보호나 사회보장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들 중 다수가 민간 토지소유주나 개발업자에게 집을 빌린다. 좁고 형편없는 집에 살기 위해 너무나 높은 집세를 지불해야 하기도 한다. 집세를 제한하



©Crispin Hughes/PANOS



는 법 역시 "미등록"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06년과 2007년의 유엔 해비타트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도시주민의 약 30~50%는 임차권을 보장하는 문서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정식으로 주소지를 인정받거나, 세입여부가 문서화 되지 않으면 거주자는 강제퇴거에 더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대출이나 공공서비스, 정규직 채용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슬럼 거주지는 대개 보건과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지역 내,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위치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공공서비스는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지리적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슬럼 주민들은 슬럼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공공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없다. 유엔 해비타트에 따르면, 그 결과 슬럼 거주자의 영양실조와 아동사망률은 농촌 지역과 맞먹는다.

슬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향후 공공서비스의 계획과 예산 편성에 있어 슬럼 주민들을 또 다시 제외하게 된다.

국제인권법상의 의무와는 반대로, 많은 국가들이 자원 배분 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우선하지 않고 있다. 국가는 초등 교육, 필수적인 기본진료의 무상제공, 안전한 식수, 기아를 벗어나는데 필요한 수준의 식량을 제공하는 등의 인권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인권문제이며, 정부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를 보장해야 한다.

케냐 나이로비(Nairobi) 키베라(Kibera) 슬럼의 마시모니 무단 거주자(Mashimoni Squatters) 초등학교. 199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528,000 명이 살고 있는 키베라는 나이로비 최대의 "비공식 정착촌"이다. 이 지역의 9개 "마을"은 도심과, 식민지 시절 유럽인 거주지였던 카렌(Karen), 랑카타(Lang'ata), 라빙턴(Lavington) 등의 부유한 교외지역 사이에 끼여 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의 202거리에서 강제 추방된 한 가족이 참복 톨(Chambok Thom)에 있는 주거지 밖에 나와 있는 모습. 참복 톨은 수도 근교의 여러 취약한 재정착 지역 중 하나이다. 2008. 2.

태롭게 달려 있다), 또는 "날아다니는 변기"(주민들이 화장실 쓰레기를 던져 버리기 위해 사용하는 작은 비닐봉지)를 이용해야만 한다.

다수의 슬럼에 1차 및 2차 보건시설의 부재를 비롯해 보건시설에 가기 위한 여비, 정부 공식문서가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의료 서비스 배제 등의 문제는 슬럼 주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한다. 유엔인구기금의 2007년 세계보고서에 따르면, 케냐, 말리, 르완다, 그리고 우간다 슬럼 거주 여성의 10~20% 만이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며 출산한다. 이에 비해 비 슬럼 도시지역의 경우 그 수치는 68~86%에 이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슬럼 내에 또는 슬럼 근처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부족을 비롯해 교육관련 비용 그리고 주거지가 허가 받지 않은 곳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입학이 거부되는 상황 등은 교육에 심각한 제한을 가한다.

정부공식문서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취약하다. 공적 분배 시스템에서 식량을 얻거나, 사회보장제도를 누리거나 또는 기타 혜택을 받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정부공식문서 없이 슬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많다.

사법제도의 이용과 이를 통한 보호의 박탈

슬럼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 지역 공공안전의 심각한 붕괴와 직결된다. 슬럼 주민들은 폭력조직과 경찰에 의한 폭력의 피해자일 가

사례연구: 캄보디아 강제퇴거

2009년 1월 24일 이른 아침, 약 250명의 캄보디아 보안군들과 철거반원들이 최루탄과 폭력을 사용해 프놈펜(Phnom Penh) 도심의 데이 크라함(Dey Kraham)에서 수백 가구를 강제퇴거시켰다. 아침 6시, 굴착기가 들어와 마을을 초토화 시켰다. 인권 운동가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해온 152 가구, 250명의 임시 거주자들이 살던 집을 잃었다. 어떤 이들은 미처 살림살이를 챙겨 나올 시간도 없었다.

프놈펜 당국은 당초 30가구도 안 되는 수의 가족들에게 재정착 지역으로 지정된 당코르(Dankor) 지구 참 차오(Cham Chao) 공동체에 거처를 제공했다. 이 지역은 도심에서 약 16km 떨어져 있었다.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깨끗한 물, 전기나 하수도 등의 기본 공공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구조물들은 공사 중이었고 지붕도 거의 없었다.

데이 크라함 지역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회사는 이전의 보상제안을 철회했다.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를 향한 세계적 추세는 정부가 교육, 보건, 물의 공급을 감독할 책임의 상당 부분을 포기할 위험을 안고 있다. 시장의 규제완화는 민간 기업들이 저소득층에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거의 없어짐을 의미할 수도 있다.

주거권과강제퇴거센터(COHRE)는 케냐 나이로비시(市) 인구의 약 55%가 비공식 정착촌에 살고 있는데도 이들은 시 당국의 계획과 예산책정 과정에서 배제된다고 강조하였다. 나이로비 중심의 남서쪽에 위치한 거대 슬럼인 키베라에는 여러 개의 수도 파이프가 지나고 있지만, 이곳의 주민들은 일반 요금의 3배에서 30배를 부과하는 기업으로부터 물을 사야만 한다.

많은 슬럼들이 위험하거나 오염된 지역에 위치하고 오랜 기간의 거주가 어려워지며, 안전한 물과 위생시설이 부족해 주민 건강악화의 위험이 증가한다. 그 예로 적절한 위생시설이 부족한 사람들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공중변소"(나무나 천 조각으로 만든 공간으로 트여있는 수원이나 진흙 구멍이 위에 위

능성이 크다. 경찰의 보호가 이루어지는 곳은 극히 제한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브라질과 자메이카 그리고 케냐의 슬럼지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었던 경찰에 의한 과도한 무력사용, 불법 살인, 일부의 경우 초법적 처형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브라질의 경우, 대규모로 투입된 경찰은 집단영장을 가지고 슬럼전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적인 수색을 해 왔다. 여성들 역시 경찰에 의해 언어적·물리적·성적 학대를 당해왔다. 브라질과 자메이카 모두에서 슬럼에 사는 사람들은 지역 전체를 범죄자 또는 범죄 공모자들로 보는 시선 때문에 경찰로부터 무시와 편견, 경멸과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밝혔다.

슬럼 주민들은 공공안전 확립에 실패한 정부 때문에 폭력범죄를 훨씬 더 많이 겪는다. 일례로 2006년, 상 파울로(Sao Paulo)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빈곤 지역인 브라실란디아(Brasilândia)의 살인사건 발생률이 10만 명당 46.24명이었던 반면 보다 부유한 지역인 빌라 마리아나(vila Mariana)는 14.95명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브라질과 자메이카의 슬럼 지역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해당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범죄집단들과 마약 조직들이 사실상 이곳 사람들의 삶의 모든 면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들은 폭력조직이 정한 통행금지 시간 동안에는 집 밖을 나가지도 못하며, 경쟁관계 폭력조직의 영역에 있는 학교나 직장은 물론 인근 의료시설에도 갈 수 없다. 주민들이나 그 친척들이 폭력조직이 정한 규칙을 어길 경우 잔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주민들은 "악덕 집주인" 혹은 그들의 대리자로부터 폭력과 협박에 시달린다.

많은 경우, 범죄를 신고하거나 또는 공무원의 행동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려 했던 슬럼 주민들은 신고하려 했던 사례에 대해 접수뿐 아니라 조사나 기소하는 것도 어렵다. 그리고 이들은 국제

"우리는 더 이상 무장폭력에 친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아이들을 잃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이 치명적인 시나리오를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에르쿨레스 멘데스(Hercules Mendes), 경찰과 폭력조직으로부터 고통 받는 리우 데 자네이루(Rio de Janeiro)의 슬럼지역 단체 콤플렉스 드 페나(Complexo de Penha)의 카라콜(Caracol) 지역 연합회장 2007. 3.

인권법에 따른 국가의 핵심의무라고 할 수 있는 의미 있고 효과적인 구제책을 거부당하기도 한다. 기존의 구제책은 보상이나 사회복귀와 같은 피해자 배상에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무시

슬럼에 사는 사람들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도시민이지만,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종종 침해 받는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참여는 이들이 겪는 차별을 해결하고 공공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슬럼 지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차별하는 것은 향후 이 지역의 개발 결정에 있어 슬럼 주민의 의견을 거부한다는 뜻이다. 이들의 참여가 거부되면 불안감이 고조되고 차별적 정책환경과 사법정의에 대한 장벽이 생기게 된다.

행동이 필요한 이유

슬럼지역 주민들이 겪는 인권침해의 규모는 피해자 수와 그들이 받는 복합적 영향 면에서 놀라운 수준이다. 각국 정부는 국내와 국제적 차원 모두에서 이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 새천년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2020년까지 1억 명의 슬럼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 목표는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그 때까지 슬럼에 살게 될 나머지 13억 명의 필요는 무시하고 있다. 현재의 슬럼 인구가 예상 속도로 증가하지 않는다 해도, 국제사회의 노력은 부적절하고 위험한 곳

에 거주하는 인구 10명 당 1명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그쳤다. 슬럼에서 늘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나머지 9억 명의 슬럼 주민들에게 조금도 줄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슬럼은 정부 및 다른 행위자들의 무관심과 차별의 결과이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많은 단체들을 비롯해 국내 및 국제 NGO들과 기관들은 지난 수십 년간 개별 국가 또는 여러 국가가 함께 슬럼 주민의 생활개선 문제에 대응하도록 노력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나는 존엄하다))) 캠페인을 통해, 슬럼 주민들이 겪는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이 같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이 문제는 빈곤의 원인이자 결과로서의 인권침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인권보호는 빈곤퇴치 노력의 핵심이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슬럼 주민들이 기본적 자원을 어떻게 박탈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공공 서비스와 절차로부터 배제되어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어떻게 권력층에 의해 무시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인권적 접근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자원"으로부터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존엄성과 인권"으로 빈곤에 대한 논쟁의 초점을 이동시킨다. 아울러 이러한 인권적 접근은 정부와 다른 행위자들이 슬럼과 빈곤에 대한 모든 접근방식에 있어 국제법과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앰네스티의 권고사항

■ 강제퇴거를 종식하라

정부는 국제 인권법에 따른 법과 정책의 채택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예방해야 한다.

■ 슬럼 주민도 공공서비스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정부는 슬럼주민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에 맞서야 한다. 차별적 영향을 주는 법안과 조항들은 검토하고 수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는 반드시 슬럼 거주자들이 물, 위생, 보건 의료, 주거, 교육에 대한 접근과 공정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슬럼개선을 위한 모든 계획과 사업에 슬럼 주민의 활발한 참여를 허용하고 보장하라.

정부는 슬럼주민 및 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억압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을 취하고 장애물을 제거하여 슬럼 주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개발 계획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개선 방안이나 주거 프로그램 및 정책들은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특히 적절한 주거권에 부합해야 한다.

www.amnesty.or.kr/dignity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전세계 150여 개국 220만 명 회원이 인권보호를 위해 캠페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된 단체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일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권존중 = 빈곤감소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 특별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045호
www.amnesty.or.kr

원문 언어: 영어
원문 발행: 2009년 5월
번역본 발행: 2010년 9월
문서번호:
ACT35/004/2009